

사회·문화적 환경이 모자의 변천에 미친 영향 - 19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

김진구* · 임선희** · 김애련**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A Effect of Sociocultural Environment on the Vicissitudes of Headgear - Focused on 19th Century in Europe -

Jin-Goo Kim*, Sun-Hee Lim** and Ae-Ryeon Kim**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 Yang University*

Graduate Students,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 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a effect of sociocultural environment on the vicissitudes of headgear in Europe on 19th Century.

Form of headgear was increasingly more functional and simple. It was needed various items with various usage. Since Industrial Revolution the French Revolution, A diffusion of sport and increase of leisure time gave rise to entrance of mass headgear with reasonability and simplicity. But female headgear was more decorative than males. Until late 19th century when female has participated in social performance, female headgear was not functional and simple form. More often female took male headgear(fedora, straw boater, cap, etc.) than bonnet when female role-awareness was changed and sport is diffused.

Key words : sociocultural environment(사회·문화적 환경), male headgear(남성모자), female headgear(여성모자).

I. 서론

환경의 변화는 생활양식을 바꾸게 되고, 인간이 지닌 가치나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사회가 변화하게 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생활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시대적 변화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재형성하고 개인과 집단의 행위양식의 재조정까지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따라서 사회·문화의 변화 속에서 의복을 비롯한 다양한 장식의 행위들도 변화하여 왔다. 사회적 산물로서의 복식은 인간집단의 총체적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 중의 한가지에 불

과하지만, 사회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습관, 사상, 기술 등의 가장 시각적인 표현 중의 하나인 것이다. 즉 사회를 반영하는 물질적인 산물인 동시에 정신적인 산물인 것이다.

유럽의 근대사회 형성기인 '근대'는 산업혁명과 합리주의적 사고방식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유럽의 '근대화'란 역사적으로 15세기 이후 봉건사회의 몰락과 함께 서구가 수세기에 걸쳐 이룩해온 문명화·기계화·공업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칭하여 전근대적인 사회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상대적인 번영과 안정을 이룬 사회조직 형태로 진행된 총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¹⁾. 특히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은 유럽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변혁

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당시의 예술사조를 이루는 신고전주의 양식은 미적 표현에 대한 사회적 이상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근대의 시대사조를 이루는 합리주의 및 자유주의는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고 그것에 의해 확립된 사상이지만, 그러한 사상의 원류는 18세기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²⁾. 이렇듯 유럽의 산업혁명과 근대화 과정은 사회, 경제구조 전반에 일대변혁을 초래함과 동시에 인간관계와 행위양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³⁾.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19세기 유럽의 복식은 그 형식적 측면에 있어 기능성과 단순성, 합리성을 갖추게 되었고, 그 형식을 이루는 주체는 소수 특권계층에서 시민계층으로 전이되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추게 된 시기가 남성복식은 18세기 말엽인 반면, 여성복식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였다고 볼 수 있다. 패션 변천요인에 관한 분석연구⁴⁾에서 서양의 남성복식은 18세기 후반에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현격히 장식요인이 줄어들고 엄격한 정숙 요인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성복식은 18세기 후반에 장식성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긴 하지만 19세기까지도 장식적 요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러스킨의 장식유형분류를 사용하여 19세기 복식장식을 유형학적으로 해석한 연구⁵⁾에서도 2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여성복식의 장식적 경향이 사라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자들은 19세기 유럽의 복식에서 남성복식은 장식적 요인이 현격히 줄어들어 현대적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장식적 요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복식과의 차이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러한 환경변화가 모자의 변화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사회·문화적 환경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는 유럽의 근대사회 형성기에 속한다. 이 시기의 유럽은 전 근대적인 사회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상대적인 번영과 안정을 이루는 총체적인 과정, 즉 근대화 과정을 겪게 된다. 유럽의 근대화란 역사적으로 15세기 이후 봉건사회의 몰락과 함께 서구가 수세기에 걸쳐 이룩해온 문명화·기계화·공업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은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변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당시의 예술사조를 이루는 신고전주의 양식은 미적 표현에 대한 사회적 이상을 제공하게 되었다⁶⁾. 이렇듯 유럽의 18세기말~19세기에 걸친 산업혁명과 근대화 과정은 사회, 경제구조 전반에 일대변혁을 초래함과 동시에 인간 관계와 행위 양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⁷⁾.

당시의 사회 변화를 이끌었던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신고전주의 양식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및 성역할의 변화는 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혁명으로 구제도의 신분적 모순을 타파한 프랑스에서는 자신들의 혁명이념인 만민의 자유·평등의 보장과 그 구체화를 위하여 복식에서의 신분 차이를 철폐하며, 새로운 질서의 도입에 있어서 그 이상적인 모델로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모방하려 하였다⁸⁾. 또한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는 나체가 아니면서 인체의미를 가장 자연스럽게 과시할 수 있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복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인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실루엣이 고안되어 복식은 기능적이며 단순한 구조를 갖게 되

1) 박호강, “근대화와 남녀역할의 변화”, *한사대학 논문집* 제10집, 1980, p.241.

2) 이경일, “18~19세기 초 영국의 사회적 근대화”, *전주산업대 논문집* 제32집, 1993, p.237.

3) 박호강, *전계논문*, p.239.

4) 임숙자, “패션 변천요인에 관한 분석연구”, *복식* 제15호, 1990, pp.233-251.

5) 구미지, “러스킨의 장식유형분류를 사용한 19세기 복식장식의 유형학적 해석” *한국의류학회지*, 제16권 제3호, 1992, pp.315-323.

6) 이경일, *전계논문*, p.237.

7) 박호강, *전계논문*, p.239.

8) 정홍숙, 최현숙, “신고전주의 양식이 19세기 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1권 제1호, 1983, p.25.

었다⁹⁾.

산업혁명만은 기술적 혁신과 함께 생산력 증대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및 사회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적으로는 생산의 지속적인 촉진과 증대를 가능케 하는 생산방법의 발명을 가져왔으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의 집적과 대기업의 성립 및 보급,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회계층의 형성과 계층간 대립을 가져오게 되었다¹⁰⁾.

산업혁명 이후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세력으로서 '시민'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근대적 생산과 상업으로 축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고양하기 시작한 시민계급은 봉건 귀족사회의 퇴진을 가져왔다¹¹⁾. 볼테르와 루소를 위시한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영향으로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존중 및 자유에의 의식과 자각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팽배해 있었으며 여기에서 근대적 시민 정신은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되었다¹²⁾. 19세기를 지배한 중심적 사회계층이 바로 시민들이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에 걸쳐서 그들은 자유의 추구 민주사회에 대한 이상의 실현, 나아가서는 산업과 부의 자유로운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성공하였다. 다수의 대중이 된 이들은 중산층을 이루게 되고, 문화의 중심세력으로서 대중복식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자유로운 민주 시민사회에 있어서는 누구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개인적 취향에 따른 의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사회의 복식의 유행은 수직적 유행성과 자유를 얻게 되어 근대시민사회에서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¹³⁾.

특히 영국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성

공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시민문화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시민계급의 복식은 곧 영국사회의 유행 복식으로 발전하여 갔다¹⁴⁾. 하지만 이러한 영국의 시민 복식은 주로 남성복식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남성이 선도하고 중심이 된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근대화 과정에 참여했다. 농경사회의 생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봉건사회에서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심미적 존재로서 가치를 부여받아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서구의 근대화는 여성에게 생산자적 역할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다. 노동자로서 사회에 진출한 여성 혹은 여성해방운동을 주창하게 된 여성들을 중심으로 근대화된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신여성(New Woman)"이라고 불리우던 직업여성들(대부분이 교사와 사무직 여성)은 보다 활동적인 육체적, 지적 삶을 살고 있었다. 1890년대의 신여성들은 여성 크리켓 클럽(1890년)과 여성 골프 조합(1893)을 창설했다. 이들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얻기 위하여 여성의 바지 차림을 주장하였다¹⁵⁾.

19세기 말 다양하고 새로운 스포츠가 남녀 모두에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복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는 스포츠웨어는 기능적이고 단순한 형태를 필요로 하였다. 1890년대에는 자전거 타기가 크게 유행하면서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 남자를 불문하고 모두 니커보커, 노력 재킷, 새일러 햇, 울 스타킹, 단화 등 합리적인 복식을 입기 시작했다¹⁶⁾. 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 풍성한 니커보커 형태의 디바이디드 스커트를 입었던 여성들은 매우 용감한 여성들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에도 불

9) 丹野郁, 西洋服飾發達史, 現代編(東京:光生館, 1968), p.3, 추희경, 임원자, "서구복식의 근대적 변천에 대한 연구", 복식 제6호(1982), pp.17-18에서 재인용.
 10) 김중현, 영국산업혁명연구(서울: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77), p.11, 추희경, 임원자, "서 구복식의 근대적 변천에 대한 연구", 복식 제6호, 1982, p.15에서 재인용.
 11) 양숙희, "19세기 유유럽 신사복 Mode의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제8권 제2호, 1984, p.142.
 12) 정홍숙, 최현숙, 전개논문, p.25.
 13) 양숙희, 전개논문, p.143.
 14) 상계논문, p.142.
 15) J. Ashelford, *The Art of Dress : Clothes and Society 1500~1914* (NY : A Times Mirror Company, 1996), p.236.
 16) J.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A History of Fashion*, 윤길순 譯, 김진구 감수, 세계패션사 2 (서울:자작 아카데미, 1997), p.145.

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여성들은 허리를 졸라매거나 긴 스커트를 입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850년대 아멜리아 블룸머 여사를 비롯하여 1880년대 영국의 합리복협회(the Rational Dress Society)의 여성 의상개혁운동은 한동안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었고, 여성의 참정권 획득 운동 또한 한층 확산되었다¹⁷⁾. 이에 따라 점차 많은 여성들의 자아의식이 변화하게 되었고, 이는 여성들의 복에서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부분 여성다움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지녔다¹⁸⁾. 즉, 여성의복은 간소화, 또는 남성화되어 남성복과 같은 더블 칼라(double collar)의 재킷과 스커트가 분리된 활동적인 투피스 수트가 나오게 되었다¹⁹⁾.

하지만 근대시기의 다수 여성들에 속하는 보수적인 여성들은 여성성의 포기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남성들 역시 장식의 영역을 여성에게 내주었고, 여성들이 그 영역을 담당하길 원했다. 따라서 당시의 여성들은 자의적·타의적으로 복식의 장식성을 배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여성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남성들이 획득한 사회적 특권을 과시하는 일을 여성복식에 위임하였다. 따라서 여성복식은 여전히 유한 계급의 부와 권위를 자랑하는 대상물이 되었다. 즉, 남성복식이 19세기 전반에 걸쳐 더욱 단순하고 기능적인 형태를 지키며 근대복식으로 정착되어 갔던 것에 비해, 여성복식은 신고전주의의 앵파이어 스타일까지도 비기능적이고 장식적인 로맨틱 스타일로 되돌아 가게 되었다. 이후 여성복식은 크리놀린 스타일, 버슬 스타일, 아르누보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그 장식적인 특성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III. 모자의 변화

1. 남성모자

1789년, 귀족계급에 대항해 시민계급이 자유를 찾기 위한 해방운동이었던 프랑스 대혁명 이후, 프랑스 혁명의 이념은 유럽 전체에 전파되어 유럽 각국이 자유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가 정치적인 면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자 복식도 자연히 유럽 전역에 지금까지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16세기 이래 근세 복식의 중심이었던 귀족계급의 호화로운 복식은 혁명을 주도한 부르주아에 의해 일소되고 그들의 이상에 잘 어울리는 간소한 복식으로 표현되었으며, 파리는 서부 유럽의 패션방향을 설정하는 결정자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²⁰⁾.

16세기와 17세기의 남성모자는 대형매달·깃털·팬던트·브레이드·리본 등으로 장식하여²¹⁾ 여성모자와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장식적이었다. 이런 장식성은 계속되어 18세기 중엽까지 깃털·단추·보석으로 장식했으나, 중엽 이후 모자의 중요성이 줄어들고²²⁾, 모자가 단순해져 전 시기에 비해 덜 장식적으로 되었지만, 타조깃털 등의 장식은 여전히 지속되었다²³⁾.

이와 같이 300여년간 지속되어 오던 귀족패션에 시민패션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있어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던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직후, 남성복식에 나타난 신·구 양식의 대립은 구귀족계급과 시민계급 간의 계급적 대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식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생 퀴로트(Sans Culotte)는 민중을 대표하는 혁명의 주도 세력으로서 혁명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빨간 모자인 피리디안 캡(phrygian cap)을 착용하였으며, 구귀족

17) 박미영, 정홍숙, “여성해방운동이 서양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1850~1950)”, *한국의류학회지*, 제15권 제3호, 1991, p.241.

18) 조규화, “1920년대 가르손느의 출현과 그 복식”, *한국의류학회지*, 제8권 3호, 1984, p.214.

19) 상계서, p.246.

20)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서울: 교문사, 1998), p.276.

21) F.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Thames & Hudson, 1988), pp.232-233, p.262.

22) P. G. Tortora & K. Eubank, *Survey of Historic Costume: A History of Western Dress*, 3rd. ed (New York: Fairchild Pub., 1998), p.235.

23) J. Laver, *Costume and Fashion: A Concise History* (London: Thames and Hudson, 1992), p.151.

계급을 지지하는 짧은 증인 앵크르와야블(Incroyable) 파는 양쪽으로 각이 진 이카모나 원추형의 특이한 모자를 써 자신들의 정치적 색채를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프랑스 혁명 이후 남성모자가 정치성향의 상징성을 대변했다는 점 외에, 19세기 들어 그 전 세기들과 달라진 요인들 중에 우선적인 것은 남성모자의 장식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세기 남성모자의 경우, 바이콘(bicorne)을 제외하고는 모자장식을 거의 볼 수 없으며 이 때부터 남성모자에 실용화·단순화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 가장 대표적인 남성모자는 톱 햇(top hat)(그림 1)인데, 이 모자는 18세기 비버 햇(beaver hat)의 모체(crown)이 높아진 것으로서²⁴⁾ 극장관람용인 오페라 햇(opera hat)의 원형이다²⁵⁾. 이 모자는 차양(brim)의 양끝이 말려 올라가고 앞뒤로 처진 형태인데, 시기에 따라 모체의 높이와 차양의 폭이 약간 변한 것 외에 19세기 내내 지속된 스타일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었다. 톱 햇(top hat)은 착용시간대에 따라 저녁에는 검정 실크나 플러쉬(plush)가 주 소재로 쓰였으며, 낮에는 흰색을 띄는 회색, 옅은 황갈색, 흰색의 톱 햇(top hat)을 착용하였다²⁶⁾는 점에서 이 시기부터 T.P.O.에 따른 복식행동이 이루어진 것도 알 수 있다. 톱 햇(top hat)의 사용은 1차 세계대전 전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신사들이 시내나 해변 같은 곳에서도 썼지만 푸줏간 주인, 우편배달부, 도시 상인들, 지방의 대지주까지 착용하여, 도시와 시골의 장소구분이나 신분의 상하에 관계없는 아주 대중적인 모자였다²⁷⁾.

바이콘(bicorne)(그림 2)은 앞뒤로 혹은 양옆으로 각진 것으로 샤프브라(Chapeau Bras)라고도 하는데²⁸⁾, 대부분 차양을 접어 팔 아래 끼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프랑스에서는 바이콘을 프랑스 국가의 색상으로 이루어진²⁹⁾ 록케이드(cockade)³⁰⁾(그림 3)로 장식



<그림 1> 톱 햇(top hat)

하거나, 조화색이나 혹은 대비색상의 주름잡힌 로젯(rosette) 장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것만이 이 시기에 장식성이 가미된 유일한 모자로 볼 수 있다. 바이콘(bicorne)의 장식인 프랑스 국가의 색상으로 만든 록케이드(cockade)장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혁명기의 민중들이 자신들의 자유분방한 이상을 복식에 표현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그리하여 자유의 상징으로 부각된 프랑스 국가의 색상인 흰색, 푸른색, 붉은색을 선호하여 복식에도 이 색상들을 이용하였는데, 흰색위주의 색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의상색조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혁명기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³¹⁾ 다소의 의의는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스트로 보우터(straw boater)(그림 4)는 스포츠

24) M. Bigelow, *Fashion in History* (Minneapolis : Burgess Company, 1970), p.200.

25) J. A. Black & M. Garland, 윤길순 譯, 전계서, p.87.

26) P. G. Tortora & K. Eubank, *op cit.*, p.345.

27) J. A. Black & M. Garland, 윤길순 譯, 전계서, p.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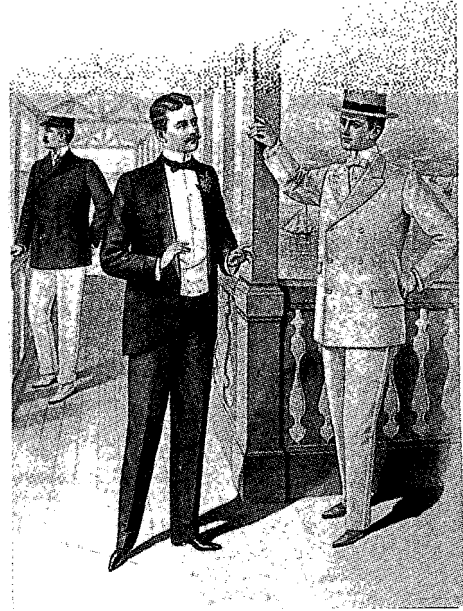
28) 상계서, p.272.

29) M. Bigelow, *op cit.*, p.164.

30) "로젯(rosette)이나 리본매듭 장식으로서 계급, 직책, 서비스의 유형을 나타내는 모자장식", M. B. Picken, *The Fashion Dictionary* (New York : Funk & Wagnalls, 1973) p.76.



<그림 2> 바이콘(bicorne)



<그림 4> 스트로 보우터(straw boater)



<그림 3> 록케이드가 달린 바이콘

용과 여름용으로 착용했던 모자로서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었으며³²⁾, 그 재료인 밀짚은 수세기 동안 농부들이 쓰던 것이었으나 근대에 와서 도시인들의 모자재료로 사용되었다³³⁾.

19세기 말 철도산업의 발전으로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좀 더 편안한 복식에 대한 요구가 생겨 캐주얼복식이 출현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의 발전은 사람들이 여가시간을 갖는 여유를 주었으며, 이런 여가를 이용하여 자전거 타기, 수영, 골프, 요트 타기, 승마, 테니스 등의 스포츠를 즐기게 되었다. 이렇게 19세기 말경에는 사람들의 욕구나 취향이 다양해지고 라이프 스타일 또한 세분되고 다양해져 스포츠는 더욱 확산되었다. 따라서 각 스포츠에 적합한 전문적인 복식이 요구되었으며 점차 스포츠웨어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다³⁴⁾.

그 외에도 페도라(fedora)와 그 변형인 홈부르크(homburgs)³⁵⁾(그림 5의 우측), 보울러(bowler) 혹은 더비 햇(derby hat)(그림 5의 좌측), 그리고 다양한 형태

31) 정홍숙, 전계서, p.279.

32) P. G. Tortora & K. Eubank, *op cit*, p.337.

33) B.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5), p.465.

34) 임원자, 백영자, 「서양복식」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92), p.320.



<그림 5> 좌: 더비 햇(derby hat), 중앙: 캡(cap), 우: 홈부르크(homburgs)

의 캡(caps)(그림 5 중앙) 등은 스포츠용 모자로 사용되었다³⁶⁾. 영국에서는 보울러(bowlers), 미국에서는 더비 햇(derby hat)이라 불리웠던 모자³⁷⁾는 1850년대 말부터 착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모체는 돛형이고, 좁은 창이 말려 올라가 있는 형태이며, 검은색 모자 밴드만이 유일한 장식인 단순한 남성모자이다. 톱햇(top hat)이 정장용 모자로 사용된 반면, 보울러(bowler)는 평상시 착용하는 모자로 애용되기도 하였다³⁸⁾. 캡(cap)(그림 6)은 19세기 중엽 이후 일하는 계층을 상징했는데, 그 편이성 때문에 스포츠와 여행시 많이 착용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노동자들의 상징이었던 데모크라틱 캡(democratic cap)을 스포츠 경기서 착용하기 시작하여 이 시기의 가장 인기 있



<그림 6> 캡(cap)

던 스포츠인 크리켓 경기나 요트경기를 할 때 이전의 토퍼(topper)³⁹⁾ 대신에 이 캡(cap)을 착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캡(cap)은 20세기 초기에도 그 인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스포츠용 모자라는⁴⁰⁾ 확고한 위치를 자리잡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19세기 남성모자의 형태는 1세가 동안 모체의 높이, 차양의 넓이, 차양이 말려 올라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또한 19세기 남성모자의 장식이란 바이콘(bicorn)의 로젯(rosette)장식과 보울러(bowler)의 헤드밴드(head band)에 그쳐, 전 세기들과는 달리 장식이 훨씬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때부터 남성모자에는 실용화·단순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성의 모자가 단순한 형태를 취하게 된 근원은 당시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19세기 들어,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과 영국을 선두로 한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 기계화와 자본주의가 부르주아적 기반 위에서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되었지만, 결국에는 노동자와 자본주의의 대

35) 페도라와 홈부르크는 모두 부드러운 펠트로 만든 모자인데, 홈부르크는 모체의 양옆이 움푹 들어간 형태이다.

36) P. G. Tortora & K.Eubank, *op cit*, p.345.

37) *Ibid*, p.290.

38) B. Payne, G. Winakor, & J. Farrell-Beck, *The History of Costume*, 2nd Ed.(NY:HarpersCollins Pub. Inc., 1992), p.522.

39) 톱 햇(top hat)의 구어체

40) J. A. Black & M. Garland, 윤길순譯, 전제서, p.136.

립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제반문제들이 당시의 시대사조를 오히려 낭만주의의 경향으로 유도하였지만, 이런 사조는 여성에게만 적용되었으며 남성들은 도시생활이나 공장 매연 등의 도시화로 인해서 보다 간편한 복식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톱 햇(top hat)이 신분의 차이 없이 남성정장에 필수적이었던 것은 시민 중심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톱 햇(top hat)의 대중화 뿐만 아니라 농부들의 모자 재료였던 밀집이 도시인들의 모자재료로 쓰이게 되었고, 노동자들의 상징이었던 캡(cap)이 스포츠용 모자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즉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의 이후 봉건제도의 몰락과 신분제도의 철폐라는 사회적 변화는 모자의 신분상징적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모자의 합리적인 기능성 추구는 스포츠의 확산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스포츠를 비롯한 여가생활에서 기능적이고 간편한 기능을 가진 복식이 요구되었고, 모자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정착된 것이다.

2. 여성모자

19세기 들어 18세기 여성들의 거대하고 장식적인 모자는 그 규모가 다소 축소되고 실용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군복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타조깃털이 장식된 남성용 바이콘 햇(bicorn hat)(그림 7)을 쓰기도 했으며, 챙에 베일이 달린 스트로 본넷(straw bonnet)을 착용하기도 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신고전주의의 영향으로 고대 그리스풍의 곰솔거리는 머리모양이 유행하였고, 모자보다는 머리에 두르는 버리끈이나 화관, 깃털장식이 유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실외용 모자 중 가장 흔한 스타일 중의 하나인 본넷은 긴 리본을 턱에서 묶게 되어 있으며, 1815년 이후 꾸준히 커진 모자와 크라운(crown)에 타조깃털이나 다른 장식으로 더 강조하였다. 본넷에는 그물모양의 레이스로 만든 베일이 달려있어 장식적 기능과 태양이나 먼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함께



<그림 7> 타조깃털이 장식된 바이콘

했다. 여름이나 보행시에는 밀집을 주 소재로 이용하였으며, 겨울이나 격식을 차려야 할 상황에서는 많은 양의 실크·크레이프·벨벳·머슬린을 사용하였다. 연령에 따라 착용하는 모자가 달랐는데, 저녁 모임시 젊은 여성들은 잘 장식된 이브닝 캡(evening cap)을 쓰고 나이 든 여성들은 터번(turban)이나 베레모(beret) 스타일을 착용했다⁴¹⁾.

대혁명 이래 부와 지성 위에서 기반을 닦아온 시민계급은 산업혁명이 절정기에 이르게 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그 지위를 더욱 신장시켰고, 부르주아 사회는 귀족풍의 풍부하고 화려한 낭만적 시대사조를 야기시켰다. 낭만주의 시대라고 불리워지는 182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 복식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모자의 장식도 훨씬 화려해지고 여성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1822년까지는 본넷을 쓰다가 그 후 햇(hat)을 더 많이 착용했다. 본넷(그림 8)과 햇(hat)을 착용할 때는 두 개의 리본을 만들어 턱 아래에서 묶었다. 햇(hat)(그림 9)의 모체(crown) 주변에는 깃털장식이 있고 극히 넓어진 챙에는 엄청나게 많은 보우(bow)·수많은 꽃·리본장

41) P. Byrde, *Nineteenth Century Fashion* (London : B. T. Batsfold Ltd., 1992) p.37.



<그림 8> 낭만주의 시대의 본넷(bonnet)



<그림 9> 낭만주의 시대의 장식적인 햇(hat)

식을 했으며, 소재는 크레이프 · 사틴 · 밀집 · 벨벳을 사용했다⁴²⁾. 이 시기의 캡(cap)은 레이스나 리본으로

장식된 흰색 모자로서 1836년부터 크기가 작아져 실내용 모자인 데이 캡(day cap)은 머리에 꼭 맞을 정도로 작게 되었으며⁴³⁾, 저녁모임에 쓰던 베레모(beret)와 터번에는 보석 · 거북껍질로 된 빛 · 리본 · 꽃 · 깃털로 화려하게 장식했다⁴⁴⁾.

1850~60년대에는 풍만한 가슴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모자와 헤어스타일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 작은 햇(hat)(그림 10)이 인기가 있었다. 작은 토크(toque)는 리본이 홍수를 이루듯이 장식되었으며, 본넷(bonnet)도 루슈 장식⁴⁵⁾과 탭 장식(tab:드리운 고리 끈)이 있는 것을 착용했으며⁴⁶⁾, 여름용은 밀짚을, 겨울용은 벨벳을, 화려한 의상에는 레이스로 장식한 실크를 즐겨 사용했다⁴⁷⁾. 나이가 약간 든 기혼여성들은 머슬린으로 만든 데이 캡(day cap)(그림 11)을 썼는데, 여기에 긴 래펫(lappet)이나 리본으로 장식했다⁴⁸⁾.



<그림 10> 크리놀린 시대의 작은 햇(hat)

42) F. Boucher, *op cit*, p.366.

43) P. Byrde, *op cit*, p.51.

44) P. G. Tortora & K. Eubank, *op cit*, p.282.

45) 실크, 크레이프, 쉬폰, 레이스 등의 길고 가느다란 조각을 주름지게 만든 것으로서, 옷 가장자리 장식에 사용하였다.

46) F. Boucher, *op cit*, p.382.

47) J. A. Black & M. Garland, 윤길순 譯, 전계서, p.124.

48) P. G. Tortora & K. Eubank, *op cit*, pp.309-310.



<그림 11> 데이 캡(day cap)



<그림 12> 스트로 보우터(straw boater)

19세기 마지막 20년 동안에는 목 뒤에서부터 달린 리본을 턱 아래에서 묶는 작은 햇(hat)이 세기말까지 유행했는데, 새로운 악세서리인 햇 핀(hat-pin)으로 고정하고⁴⁹⁾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레이스·깃털·리본으로 모자를 장식했다⁵⁰⁾. 이 시기 여성들은 여성모자 상점에서 햇 프레임(hat frame)을 선택한 후, 자신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장식을 모자 위에 배열해 본 뒤 구매하곤 했다⁵¹⁾. 본넛은 크기가 계속 작아져 나이 많은 여성들만 착용하였으며⁵²⁾, 직업여성들은 페도라(fedora)나 스트로 보우터(straw boater)(그림 4)등의 남성용 스타일을 착용했다⁵³⁾. 운동할 때에는 남성 스타일의 모자를 착용했는데, 여성들은 자전거를 탈 때나 테니스를 칠 때 세일러 햇(sailor hat)(그림 12)을 사용하였고, 골프용 모자로는 태머산터(Tam o'Shanter)⁵⁴⁾나 뉘부르크 햇(Homburg hat)을 사

용하였다⁵⁵⁾.

이는 젊은 여성들의 의식변화를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했다. 이 시기의 젊은 여성들은 지나치게 여성스러운 험란한 장식에 반기를 들고 남성복식에서 많은 요소들을 차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세기 여성들의 대표적 모자는 본넛(bonnet)과 햇(hat)이라고 할 수 있다.

본넛(bonnet)은 햇(hat)보다도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데, 태양이나 먼지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하였고, 이는 19세기 들어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복식에 대한 요구가 커졌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많은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지 못한 채 여성들만의 모자로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졌다. 이러한 이유는 머리 뒤에서 얼굴의 볼까지 감싸게 되는 본넛(bonnet)의 형태에서도

49) F. Boucher, *op cit*, pp.394-400.

50) P. G. Tortora & K. Eubank, *op cit*, p.334.

51) M. Bigelow, *op cit*, p.227.

52) P. Byrde, *op cit*, p.87.

53) P. G. Tortora & K. Eubank, *op cit*, p.334.

54) 둥글납작한 테 없는 모자

55) J. A. Black & M. Garland, 윤길순 譯, 전계서, pp.145-147.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보호받고 감추어져야 하는 여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여성들의 햇(hat) 착용은 18세기 말부터 등장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선 혁명기에 영국의 수수한 프락 코트와 라이딩 코트가 유입되었고, 여성들의 복식은 편안한 형태의 머슬린 슈미즈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승마가 여성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복식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남성들의 프락 코트(frock coat)와 유사한 라이딩 재킷(riding jacket)을 입었고, 햇(hat) 역시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옷차림이 남성성을 그대로 차용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성들은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를 혼합한 방식으로 꾸민 것이다. 여성들의 승마가 확산되면서 햇(hat)의 사용도 확산되어 평상시에도 갖길 장식된 넓은 차양의 밀집 모자(straw hat)이 자주 착용되었다.

이렇게 여성들의 햇(hat) 착용은 프랑스 혁명의 이념과 신고전주의의 그리스풍 의복의 유행, 스포츠의 확산 등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서 더욱 확산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성을 드러내고 있는 깃털이나 리본, 꽃 등의 장식이 더해졌고, 기능성보다는 장식성이 앞서고 있었다.

또한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은 남성의 복식으로 간주되었던 스트로 세일러 햇(straw sailor hat)이나 트weed 캡(tweed cap)(그림 13), 페도라(fedora) 등을 착용하였던 것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었고, 의복과 마찬가지로 남장화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다른 용도의 모자에 비하여 스포츠용 모자는 더 단순하고 상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19세기 여자모자는 용도와 종류가 다양해졌고, 남성모자를 차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다소 기능적이고 단순한 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남자모자와는 달리 깃털·레이스·리본·무슈 장식·탭(tab)장식·보석·거북껍질로 된 빗 등 풍부하면서도 다양한 장식을 사용한, 아주 장식적인 아이템임을 알 수 있다. 이전 16세기·17세기·18세기 내내 여성의 모자는 아주 장식적인 품목이었으며, 장식의 종류로는 서링과 퍼프·러플이나 리본다발·레이스·깃털·보석브로치·생화와 조



<그림 13> 트weed 캡(tweed cap)

화·동물모양 등 아주 다양할 뿐 아니라, 양도 풍부하게 사용되었다. 소재는 실크·벨벳·머슬린·타프타 등의 고급스러운 재질을 이용해 장식적인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듯 이전 시대들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특성이 여성의 모자에서 19세기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말에 이르러 젊은 여성들은 여성스런 모자의 상징인 본넷을 쓰지 않았으며, 여성들이 운동할 때나 직업여성들의 경우, 남성 스타일의 모자를 착용하기 시작해 여성모자에 있어서도 근대화라는 변화가 싹트고 있었다.

IV. 결 론

유럽 사회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번영과 안정을 이루게 된 19세기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복식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복식은 기능성과 단순성, 합리성을 갖춘 형식으로 변화하였고, 복식문화의 주체는 시민계급으로 전이되었다. 하지만 남성이 근대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복식에 있어서도 합리성을 도입한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이 이룩한 부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대상물로서의 존재였

기 때문에 복식에서도 여전히 장식적이고 심미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16~18세기 중엽까지는 대형메달·깃털·리본 등으로 지나치게 장식적이었던 남성모자가 복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18세기 중엽 이후 점차 감소되면서, 모자의 형태도 단순해져 근세에 비해 장식적인 면이 훨씬 감소되었지만, 타조깃털 등의 장식적 요소의 사용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남성의 모자는 톱 햇(top hat), 캡(cap), 스트로 보우터(straw boater) 등의 단순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단지, 프랑스혁명 이후 로셋(rosette)을 장식한 바이콘(bicorne)만이 유일하게 장식적일 뿐이었다.

남성 정장에서 필수적인 품목이었던 톱 햇(top hat)은 도시의 상인, 지방의 대지주, 우편대달부, 푸줏간 주인에 이르기까지 대중적으로 착용하는 모자가 되었다. 이러한 대중성은 시민 중심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세기말에 스포츠가 더욱 확산되면서 모자에도 기능성과 편리성을 요구하게 되어, 밀집으로 만든 스트로 보우터(straw boater)나 캡(cap)이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여성의 모자는 본넷(bonnet)과 햇(hat)이 대표적이었고, 근세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깃털, 리본, 루슈 장식, 텡장식, 보석, 거북껍질로 된 빗 등으로 풍성하게 장식되고 있었다. 19세기 말 여성들은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스포츠의 확산으로 남성모자인 스트로 보우터(straw boater), 페도라(fedora), 홈부르크(homburg) 등을 착용하였으며, 사회참여나 여가 활동을 즐기던 젊은 여성들은 대표적인 여성모자인 본넷(bonnet)을 더 이상 쓰지 않았다. 그리고 운동할 때나 직장에서는 남성 스타일의 모자인 페도라(fedora)나 스트로 보우터(straw boater)를 착용하기도 했다.

19세기 모자의 변천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은 프랑스 혁명이라는 정치적 요인과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적 발전, 시민계급의 부상, 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여성해방운동, 스포츠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남녀 모자의 변천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그 형식면에서는 달랐다. 남성들은 자신들이 성취한 사회적 지위의 과시를 여성들에게 전

가함으로써 남성모자는 단순하고 비장식적인 형식을 취한 반면, 여성모자는 여전히 장식적이고 심미적인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모자가 비교적 덜 장식적이고 단순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스포츠가 확산되는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근세까지는 복식에서 심미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하였지만, 19세기 들어 활발한 사회활동의 참여는 복식의 심미성과 함께 기능성까지도 요구하게 만들었다. 복식의 한 품목인 모자 역시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여 기능성이 강조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녀의 사회활동의 참여 시기가 달랐으므로 남성의 모자는 18세기 말에 이미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여성의 모자는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과정 중, 선택한 자료가 실물자료가 아닌 문헌자료이기 때문에 각 문헌에서 설명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러한 경우 연구의 방향과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곽미영, 정홍숙 (1991). "여성해방운동이 서양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1850~1950)". *한국의류학회지* 제15권 제3호.
- 구미지 (1992). "러스킨의 장식유형분류를 사용한 19세기 복식장식의 유형학적 해석". *한국의류학회지* 제16권 제3호.
- 박호강 (1980). "근대화와 남녀역할의 변화". *한사대학 논문집* 10집.
- 양숙희 (1984). "19세기 유유럽 신사복 Mode의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제8권 제2호.
- 이경일 (1993). "18~19세기 초 영국의 사회적 근대화". *진주산업대논문집* 32집.
- 임숙자 (1990). "패션 변천요인에 관한 분석연구". *복식* 제15호.
- 임원자, 백영자 (1992). *서양복식*.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정홍숙 (1998). *서양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
- 정홍숙, 최현숙 (1983). "신교전주의 양식이 19세기 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1권 제1호.
- 조규화 (1984). "1920년대 가르손느의 출현과 그 복식".

- 한국의류학회지 제8권 제3호.
- 채금석 (1996). "현대 남성수트의 변천과 미학적 특성". 복식 제30호.
- 최문환 (1976). 박준서, 오일홍, 우기도. *경제사*. 서울:박영사.
- 추희경, 임원자 (1982). "서구복식의 근대적 변천에 대한 연구". 복식 제6호.
- 허원 (1998). "근대화'의 개념과 이데올로기". *서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 7집.
- Black, A. J. & Madge Garland (1997). *A History of Fashion*. 옮김순 譯. 김진구 감수. *세계패션사*. 서울: 자작아카데미.
- Bond, D. (1996). *The Guinness Guide to Twentieth Century Fashion*. 정현숙 역. *20세기 패션*. 서울:경춘사.
- Hollander (1996). A. 채금석 역, *의복과 성*. 서울:경춘사.
- Horn, M. J. & L. M. Gurcl (1988). *The Second Skin*.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의복:세2의 피부*. 서울:까치.
- Moore, W. E. (1981). *Social Change*.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1963. 김일철 역, *사회변동론*. 서울:탐구당.
- Ashelford, J. (1996). *The Art of Dress : Clothes and Society 1500~1914*. NY : A Times Mirror Company.
- Bigelow, M. (1970). *Fashion in History: Apparel in the Western World*. Burgess Publishing Company.
- Boucher, F. (1988).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London:Thames and Hudson.
- Byrde, P. (1992). *Nineteenth Century Fashion*. London : B. T. Batsford Ltd.
- Ewing, E. (1978). *His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London : N. T. Batsfold Ltd.
- Laver, J. (1992). *Costume and Fashion : A Concise History*. London : Thames and Hudson.
- Payne, B. (1965). *History of Costume*. New York:Harper & Row Pub.
- Payne, B., G. Winakor, & J. Farrell-Beck (1992). *The History of Costume*. 2nd ed. N. Y. : Harpers-Collins Pub. Inc.
- Picken, M. B. *The Fashion Dictionary*. New York:Funk & Wagnalls.
- Tortora, P. G., & K. Eubank (1998). *Survey of Historic Costume: A History of Western Dress*. 3rd ed. New York : Fairchild Publication.